

社說

교내 건설공사 중간점검 질실

지금 국내 모든 대학은 절충은 교육환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학교 또한 그 움직임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다.

새로운 공간확보를 위한 신축공사와 절충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개보수 공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다. 이러한 공사를 위해 지난 학학기간 동안 실업적인 부대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건설공사와 개보수 공사로 인해 많은 불편이 따르는데 불구하고 좀더 나은 교육여건을 위해 우리 모두는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했다. 그러나 각종 공사상 당초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캠퍼스의 복지관, 기생대, 문리대 증축 등의 공사와 수원캠퍼스의 중앙도서관 공사는 공사진행 중에 부분적으로 설계변경, 허가와 새로운 설계에 따른 추가 계약 등의 문제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물론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고려하는 노력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삼이나 뜨고 보자'는 식의 측중에서 조급한 작업진행에 따른 일정지연이더라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측에 대한 몇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학생회 작은일부터 거둬나기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처분이 대학에 다스림 대우라고 있다.

"언제 총학생회 간부 회비교차, 학사경고 제적-회계사 학적" 대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조적이지 않은가? 두사람의 격차가 총지급되는 것은 가?라는 다소 냉소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일인지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성 인연의 보드타도에 유감을 표하기 앞서, 오늘날 대학사회의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한다.

이제 대학에서는 제적은 사회에서의 사형선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학생은 물론, 대학도 명예훼손이 아닌 일기에서 '자괴감과 선조' 간헐하게 결정하기만 하는 것이 없는 일이다.

학사경고제도의 제도일 이후 대학에서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학적처분의 문제는 '학사회 학적'을 주관 관행과 '학사규정'상의 '원칙' 사이를 오가며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만을 고집하는 교육부의 정책에서는 발전적인 대안이 제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생회측은 '학도의 선제'를 학교측은 '학적인 줄 더 정제해 줄 것'을 바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각 대학의 실정을 놓고 본다면 비단 연세대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일반의 파고는 시선을 감안할 때 오늘날 대학은 학문연구를 통한 조약과 인재 양생,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각 사업별 중간점검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정 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계획안에는 앞으로 시행할 공사까지도 고려해 공사시기의 예산, 인력 편성 등에 대한 적절한 안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축공사 이후의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이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건물 자체만의 문제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캠퍼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공간장소의 원적 아래 세부적인 사항까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간지배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편의를 통한 합의의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 공간에서 최대의 효용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소음과 통행불편 등을 유발하는 공사가 공사지연으로 지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어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에 대한 관심과 중간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신축건물이 21세기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며 건설이란 특성상 부딪칠 수 있는 각종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바가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사회 봉사 실현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올해 1학기 성적 경고 대상자가 9명77명이며, 3회 연속 성적 경고 2 제적된 학생수는 모두 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절반, 전공과목에 적응 미숙 등 사적인 이유로 인한 경고 내지는 제적처리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지만 학생회 간부는 문제가 다르다.

전체학생의 대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공민(公人)과 학생을 진로로 한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학생운동이 변화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일반적 평가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로서 대다수의 대학 구성원들은 학생회 활동과 그로 인한 결정이 두드러진 당사자의 불이익으로만 결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학업자체에 불충분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학생회 간부들은 이해를 하기보다는 학생으로서, 동료로서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나간 채 신뢰의 바탕이 형성된다면 평범한 진로를 실천으로써 보여주기 바란다.

학생회의 인권이라든가 현재 일반 학생들이 학생회에 거는 기대와 요구가 적절치 못하게 변화하고, 양적으로는 얼마나 평행하고 있는지를 지식하고 거듭 나아간다.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은 구호로부터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강의실에서 휴게실에서 부딪힘에 대할 수 있는 선배도 또는 경쟁자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진정 함께 한다는 교감이 얻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사경고 제적-회계사 학적" 대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조적이지 않은가? 두사람의 격차가 총지급되는 것은 가?라는 다소 냉소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일인지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성 인연의 보드타도에 유감을 표하기 앞서, 오늘날 대학사회의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한다.

이제 대학에서는 제적은 사회에서의 사형선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학생은 물론, 대학도 명예훼손이 아닌 일기에서 '자괴감과 선조' 간헐하게 결정하기만 하는 것이 없는 일이다.

학사경고제도의 제도일 이후 대학에서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학적처분의 문제는 '학사회 학적'을 주관 관행과 '학사규정'상의 '원칙' 사이를 오가며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만을 고집하는 교육부의 정책에서는 발전적인 대안이 제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생회측은 '학도의 선제'를 학교측은 '학적인 줄 더 정제해 줄 것'을 바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적 사고방식”과 학생의 함수관계를 재고해 보길...

행복을 맛보려는 순간 이 이전부터 무엇인가, 어딘가에서 울려오는 동요의 파리와 소리, 장구소리... 더위를 뒤집어쓰고 장문을 달아도 마르듯 열을 두드리는 듯이 들려오는 그 반박적이기도 집요한 소음은, 문자 그대로 '성고문(聲拷問)' 그것도 모자라 지속되는 '성고문'인 것이다.

진풍경을 되돌아보는 것은 좋다. 그러나 문화를 되돌아보면 그 문화의 정신까지 함께 보존하였으면 좋겠다. 우리 조

교수 단상

상임들이 보내기 해놓고 잠깐은 동시의 소중함 절실함을 느끼고 축하할 때 올린 귀한 장려금과 장수소리가 수 천명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고, 천행하는 교수들의 마음을 제 푸르게 하며,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소중한 학문의 양곡을 찢정으로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었다면 전통문화의 되살아나는 의미가 있었는가? 어쩌면 이것은 남의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장려금과 장수소리가 한 사람의 일순도 아쉬워할 때, 그 옆에 가가 평과되고 장수소리가 높아지는 실상은 사람의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도 농악대의 존재를 고집한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이왕 농악대의 존재를 공인한 것이라면, 만약 분위가 유지를 위하여 방음장치된 연습실이라든가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소음은 전체주의 상징(?)

이제 10월이 오면,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계절이 온다. 단과 대학원, 과별 체육대회가 열리면, 열리는 날마다 추위같은 운동장에 마이코를 설치해 놓고 하루종일 체육대회를 진행한다. 꼭 필요한 말 이외에도 내내 음악을 치르게 붙여놓고, 나중에 마이코를 잡은 집어 옮기지 않는 데, '남자의 배, 여자의 허벅지' 노래가 나오거나 하면 '아, 너 잠깐만! 이리하고!'하는 사람들이 마이코를 타고 강지실로, 연구실로 파고 들어 수백 수천의 사람을 괴롭히고, 학교의 존재 이유인 학문의 전수와 연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수업을 하고 연구하는 공

것은 24시간 개인의 생활을 감시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방에 의무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달린 거울과 함께 행방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과 자유를 박탈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가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숙수무력으로 학생들의 소음을 시달린다 보면 나는 어느새인가 '1984년'의 악몽 속을 살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

학생들이 화성기를 통하여 젊음을 발산하고 싶을 때, 나는 학생들,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민주적 사고방식'과 학생의 함수관계를 재고해 보길 바란다. '자유'와 '민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비민주적 행위'의 예를 보여주기 위하여 자유의 의미를 음미하게 하는 한 방법이 있다.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는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에서 볼런서 혁명 전야의 흥분하던 민심을 아주 생생히 전체주의적 권력의 상

낮에는 팽과리소리 밤에는 노래소리에 연구 힘들어

정물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가 상적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개인의 방마다 스위치가 없는 화성기가 달려 있다. 국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세뇌용의 메시지들은 아무때나 개인의 방으로 전달되며, 개인은 이것을 거부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집요한 소음은, 문자 그대로 ‘성고문(聲拷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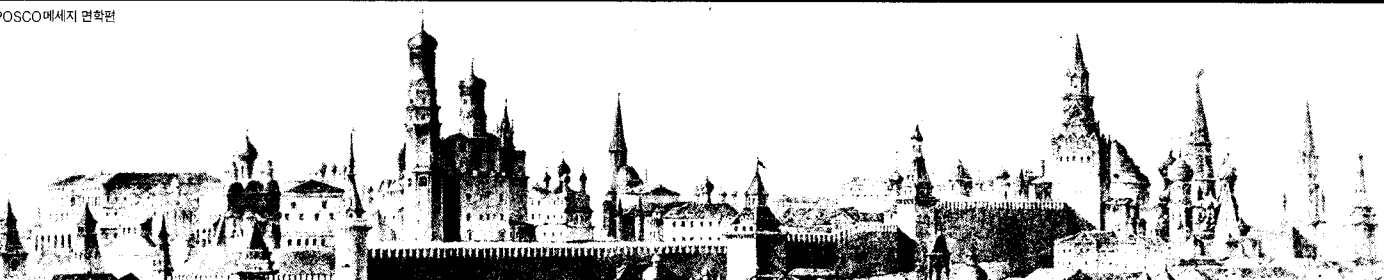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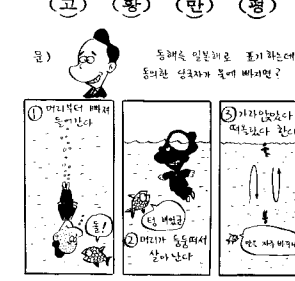
같은 귀족들의 횡포는 결국 피의 복수를 불러, 볼런서 혁명이 공포정치로 이어지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학생운동은 소음추방부터

비민주적 횡포한 것의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 나 편한대로만 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익이나 편의를 어떻게 침해하는가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행거를 두드려 내거나 마이코를 잡고 흥을 낸다, 손레보는 수천명의 학생들에게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학생들의 태도와, 파리의 마트 길은 귀찮게 어지러운 서민이나 차이 죽이는 것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볼런서 귀족의 횡포인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학생들은 탄력적이고 유연함으로 학생의 이러한 생활방식은 반성적 사고만 있다면 하여야 참관하고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높은 함학열은 드디어 중앙 최대규모의 도서관 준공이라는 엄청난 실연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 함학열의 여세를 몰아 교내의 문학문화의 계를 깨뜨리는 소음추방 운동을 일으키지만, 이것은 정말 학생다운 학생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교(교) 황(황) 단(단) 정(정)



“톨스토이의 착각” - 학문을 깨는 광부가 되십시오 -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그는 비정규적인 성격때문에 대학원 학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2년도 채 못가 학업을 중단하고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대학은 학문의 대성소(大聖所)'라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였다고 후일 고백하기도 하였습니

다. 젊은 날 톨스토이가 상상했던 대학에 대한 그토록 이해 대학은 학문의 대성소(大聖所)가 아니라 신의 나라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자 불행한 것일지 모르

진 것만가을 살 기본치 주고 있습니다. 문학의 제정인들 가운데서도 톨스토이를 찬미해 주는 광부가 되십시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그려보십시오. 이제 - 통찰력과 열정으로 지성의 샘이 솟아 나오는 성품 다가가십시오.

포항제철